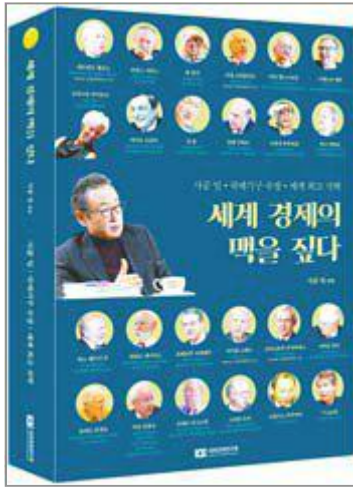




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

위해 마주 앉자마자 비결을 귀띔해달라고 했다. 우선 사공 이사장은 “테크닉은 소용없다”며 “바로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들은 학문적인 성취나 직업적인 성공으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라며 “내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그들의 성에 차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정치적 시각이 서로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을 인물들과 만나 교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공 이사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 눈보라가 몰아쳐 도시 자체가 마비되고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나와 대담에 응했다”며 “(나와 대화)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된다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비결은 끊임없는 연구였다. 사공 이사장은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바쁜 사람들이다. 귀중한 시간을 내 서로 이야기하는 데 그들도 얻을 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이 최근 어떤 보고서나 논문, 책 등을 펴냈는지도 파악하고 읽어보는 일도 중요하다. “그들의 최근 성과나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 조언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규 기자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사공일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대통령 경제수석과 재무장관을 지내며 한국 경제 성장과 자유화를 주도했다. 1993년 세계경제연구원(IGE)을 세워 지난해까지 이사장을 역임했다.

관련기사

트럼프와 G20 결전 앞둔 시진핑, 홍콩 시위 악재로 골머리